

2060년 전남에서 사과 못 키운다

통계청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현황' 보니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40여년 후에는 전남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90년이면 북승아도 전남지역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현황'을 보면 전국 주요 권역의 연 평균 기온은 최근 40여년 새 1도 안팎으로 상승했고 강원도에서 사과재배 면적이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배 면적에도 변화가 있었다. 사과는 현재 전남과 충북, 경북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수다.

전남지역도 지난 1973년에 견줘 연평균 기온이 0.54(2016년 현재)도 증가했다. 제주지역이 1.14도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수도권 0.91도, 강원권 0.90도, 충북권 0.83도, 전북·경북권 0.63도 순이었다. 기온상승에 따라 사과 주산지는 오는

40년간 연평균 기온 0.54도 상승 사과 주산지 강원 산간으로 이동 감귤은 고흥·통영으로 옮겨

포도 재배 2050년 이후 급감

2090년에는 북승아도 자취 감춰

2030년 강원 산간 지역으로 바뀌는 등 재배면적이 북상할 것으로 점쳐졌다. 오는 2060년대에는 구례 지리산 자락을 제외하고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2090년에는 태백시, 정선군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사과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970년에 강원도 정선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3.7ha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5

년에는 38.3배인 141.8ha로 늘었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고구마 재배하고 있는 북승아는 오는 2050년대까지는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50년대 이후에는 재배면적이 급감추세를 보이다 2090년대는 전북·영동 일부 산간에서만 키울 수 있다.

재배면적 추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1970년 충북 충주시의 북승아 재배 면적은 61.9ha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1542.7ha로 24.9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북승아 재배 면적은 42.2ha, 86.6ha에서 194.4ha, 254.9ha로 각각 늘었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포도의 총 재배 가능지는 2050년대에 정점을 찍은 후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적지는 202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해 2060년대에는 곡성·구례 등 전남 북서부 지역으로 범위가 축소된다. 같은 시기 경남에서도 재

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강원도에서는 빠르게 증가한다.

제주도가 주산지인 감귤의 경우 고흥과 경남 통영으로 재배지가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090년에는 강원 영동지역으로 옮겨가고 제주도는 한라산 중턱 등에서만 감귤 재배가 가능하다.

단감 재배지역도 온난화 추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순천·광양 등 따뜻한 남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감 재배지는 1990년대 나주·장성 등 전남 서해안으로 확장됐다. 재배면적이 북상하면서 2060년에는 전남 대부분 지역이 재배적지로 변하고 2090년에는 경북 북서 지역 등 산간을 제외한 중부내륙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온 상승이 작물 재배면적을 변화시킨 100% 원인은 아닐 수는 있으나 다른 연구 문헌 등을 살펴보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기아차 취업 사기' 임직원 연루 여부 수사

광주지검, 10명 채용 사실 등 주목...기아차 바짝 긴장

검찰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둘러싼 취업사기(광주일보 5월 29·31일자 6면)와 관련해 기아차 임직원의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요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운영준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울산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현대차 채용비리 사건(지난 2004~2005년) 초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업 채용 비리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기아차 광주공장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2건의 기아차 취업사기 중 1건은 단순사기 혐의로 종결처리했으나, 전 기아차 노조원 소모(41)씨와 관련된 사건은 기아차와 직접적인 연관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검찰은 소씨가 전직 기아차 노조 대의인이라는 점에서 기아차 관계자 등과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소씨는 취업알선브로커 김모(61)씨와 짜고 노조 경력과 회사 간부와 친분 등을 내세워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1인당 500만~1억여원씩 총 5억원을 받아 쟁점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경찰이 수개월째 추적중인 황모(49) 전 24대 기아차 노조 광주공장

부지회장의 수습역대 취업사기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황씨는 노조간부 신분을 내세워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취업희망자 29명에게 1인당 3000만~1억5000만원씩 총 19억원을 쟁점 혐의로 받고 있는데, 추가 피해자와 피해액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황씨는 지난해 말부터 무단결근하고 행방을 감춘 상태로, 경찰은 공개수사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황씨에게 소개비를 받고 취업희망자를 알선한 전·현직 기아차 직원 2명은 이미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황씨에게 금품을 건넨 취업희망자 29명 중 실제 기아차에 채용된 근로자가 10명에 이른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황씨에게 개인당 2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건넸으며, 경찰조사에서 "채용대가가 아닌 단순 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전 기아차 노조 대의원의 사건 수사와 별개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전 노조 부지회장의 취업사기도 여러 부분에서 관심이 가는 사건"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구조적 채용비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거래금 등 부풀려 300억대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영장

광주지검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세화아이엠씨 유모 전 부회장, 유모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1~2017년까지 회사 자금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 거래금, 직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세화아이엠씨 현 경영진과 하청업체가 이들 임직원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1981년 설립된 타이어 금형 및 제조설비 전문기업 세화아이엠씨는 임직원 510명, 자본금 49억원 규모로 광주에 본사를, 미주·유럽·아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관광박람회 팔찌 만들기 체험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호남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팔찌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3일까지 계속된다.

/나문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대 예술대학원서도 누드모델 몰카 논란

모델·촬영자 모두 여성 추정 대자보 게시...경찰 내사 착수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원 미술수업 중 한 대학원생이 누드 모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캠퍼스에 게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누드모델과 촬영자 모두 여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1일 SNS 페이스북 '전남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촬영한 사진이 게재됐다. 이 대자보는 전남대경영대 건물에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전남대 예술대에서 모델 수업을 진행했던 누드모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대자보에서 "대학원생이 지난 3월 28일 수업 중에 자신을 몰래 촬영했으며 이는 다른 대학원생이 제보

해 알게됐다"며 "촬영을 한 학생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으며 '영상을 지웠다'고 할 뿐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몰랐다고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또 "지난 5월 9일 수업에서 해당 학생은 저를 불러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고, 자세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몸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 지도교수는 또다시 어떠한 제지나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수업이 끝난 후 학과실에 해

당 학생이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청했고 학과실측에서 해당 학생에게 수업 참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끝으로 "학생과 지도교수, 예술대의 서면 사과를 원한다"며 "해당 학생이 대학원 수료를 통해 또 다른 권력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자보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인물을 찾고 있다"며 "대자보에 나온 피해자, 가해자 모두 여성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내용 파악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도, 강진의료원 간호사 태움·갑질 진상조사

전남도가 강진의료원 간부 간호사의 '태움'과 '갑질' 논란(광주일보 5월 31일자 6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강진의료원에 직원을 보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료원 경영진과 노조의 주장이 맞서 있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은 자체 고충처리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원 내부 갈등으로 보인다"면서 "노사협의회 등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갈등 해결 문제와 별개로 의료원 직원 관리 등에 있어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개선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섬에서 불법 채취한 약초 택배로 밀반출하려다 '딱 걸렸네'

○...전남 섬지역에서 불법 채취한 약초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시를 피해 택배로 밀반출하려던 50대 남성이 지역민의 제보로 국립공원지킴이들에게 적발.

○...지난 31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에 서 채취한 하수오, 천문동 등 약초를 조

도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보내려 했다는 것.

○...조사 결과 A씨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시가 엄중한 항구를 피해 우체국 택배로 약초를 밀반출하려 했는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관계자는 "섬에서 채취한 야생생물을 육지로 반출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A씨는 추가 조사 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원룸 매매 (원룸전문)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원룸 18개, 안집1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 3억5천가)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 (합 16개) 월세 580만 ▶ 매가 8억2천
- ②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 ③ 산정동원바로앞 (코너) 1층상가(2개) 원룸(12개) 4층 (최고급주택) 월세 550만 ▶ 매가 9억5천만

062-382-5500 010-6670-9800

상가 매매 (수익형)

북구 용봉동 우미A.P.T/상대 1분(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상가건물 안집 있음)

보 1억6천 만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보5백 월40만) ▶ 시세 8천만-매매가 7천만
- ②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 (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가 9억
- ③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④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1개) ▶ 매가가 3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토지 추천

- 1)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
- 3)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정가 37억 → 최저가11억
- 4)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위아파트 위치 ▶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
-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동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 시세 18억 → 최저가19억5천
- 2) 북구 문흥동 토 378평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7천9백
- 4) 나주시 송월동 17평 상업지 ▶ 감정가 8억4천5백 → 최저가 4억7천
- 5) 장성군 장성읍 80,910평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
- 6)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554평 ▶ 감정가 1억8천 → 최저가 1억2천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주택 공장/기타

- ①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만
- ② 남구 백운동 (빌라)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 ③ 북구 신안동 (8층 숙박시설)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4억8천
- ④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2억9천9백
- ⑤ 남구 주월동 (미빌) 토 108평 건 88평 감정가 4억9천 → 최저가 1억
- ① 남구 방림동 광신로교차로 (44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② 남구 방림동 라온호천아파트 (22평) 감정가 1억9천 → 최저가 1억9천
- ③ 남구 진월동 현대아파트 (44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1억9천
- ④ 북구 신안동 상암아파트 (84평) 감정가 1억9천 → 최저가 1억9천
- ⑤ 서구 치평동 대우아파트 (22평) 시세 198천 → 최저가 198천
- ① 남구 주월동(주택) 토 40평 건 4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② 광산구 도산동(주택) 토 66평 건 26평 감정가 7천9백 → 최저가 7천9백
- ③ 북구 신안동(숙박시설) 토 117평 건 328평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4억8천
- ④ 서구 방림동(숙박시설) 토 199평 건 427평 감정가 12억9천 → 최저가 12억9천
- ⑤ 광산구 월전동(공방) 토 126평 건 88평 감정가 34억 → 최저가 34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6월 개강)

- ① 기초실전문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문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실전문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